

# 이들처럼 든든한 KIA 3~5선발 시급하다



69승 중 1·2선발 33승 책임  
임기영·정용운 후반기 부진  
임시 선발로 마운드 꾸려  
가을잔치 위해 안정 찾아야

또 다른 '난세의 영웅'을 기다리는 KIA 타이거즈의 마운드다.

'호랑이 군단'에 고민 많은 패배가 남았다. 지난 17·18일 2위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빈타 속에 2연패를 당하고 내려온 KIA는 19일 SK 와이번스와의 홈경기에서는 1-13의 대패를 당했다.

세 경기에서 3점을 만든 공격도 공격이지만 선발 고민이 더 아프게 남은 패배들이었다.

KIA는 NC-두산-SK와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6연전을 앞두고 내심 비를 기대했다. 전반기 마운드에서 '난세의 영웅'으로 활약해왔던 사이드암 임기영과 좌완 정용운이 계속된 부진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임시 선발' 체제로 한 주를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만만치 않은 상대들과의 6연전이었던 만큼 주중에 예고됐던 비 예보가 반가웠다. 그러나 바람과 달리 비가 피해 가면서 KIA는 어려운 마운드 살림 속에 경기를 치러야 했다.

NC와의 2연승에는 양현종과 핵터라는 '워터 펀치'가 있었다. 두 사람은 NC를 상대로 각각 17승과 16승을 거두면서 KIA가 기록한 69승 중 33승을 책임지면서 승지분의 48%를 차지했다.

그러나 남은 세 자리의 힘이 떨어진다. 안정감이 부족한 팻님이 두산과의 경기에서 5이닝 4실점으로 패전이 되는 등 올 시즌 6승밖에 만들어내지 못했다. 든든하던 임기영의 이탈 속 임시 선발 두 자리도 계산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임기준과 배원찬이 각각 불펜에서 시험가동한 뒤, 선발로 나섰지만 결과는 모두 패배.



핵터



양현종

임기준은 5이닝 2실점이라는 예상외의 호투로 마운드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타선의 잇박자 속에 1-2경기의 패전 투수가 됐다.

17일 두산전 중간 계투로 나와 1이닝 2탈삼진의 갈끔한 투구를 한 배원찬은 선발로 나섰던 19일에는 2.1이닝 11실점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남기고 20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KIA는 '임시 선발'로 시즌 초반을 보냈다. 이후 임기영, 정용운의 '깜짝 활약'으로 마운드 큰 틀은 갖춰지지만, 불펜 고민으로 시름이 빼졌던 전반기였다. 후반기에는

양상이 달라졌다. 불펜진이 자리를 잡으며 안정세로 접어들자 선발이 빠꺼거리고 있다. 여기에 부진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던 임기영이 어깨 통증으로 재활군에서 새 출발을 하면서 예상보다는 복귀가 늦어지게 됐다.

임기준이 일단 선발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래도 한 자리가 남는다. 불펜에서는 홍건희와 박진태가 올 시즌 선발로서의 경험에 있다. 특히 홍건희는 선발 준비는 숙제를 받고 2군에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홍건희의 자리 이동이 모

날 수도 있다는 점은 고민이다. 그렇다고 '악몽의 1회'로 쌓이는 패배의 총격을 외면할 수도 없다. 지난 19일 주말을 맞아 챔피언스필드에는 1만9200명의 관중이 찾았다. 명승부를 기대했던 팬들은 1회부터 무기력한 졸전을 지켜보아야 했다.

SK와의 주말 2연전에서 이민우가 1군과 훈련을 하며 컨디션 점검을 받는 등 전방위적 대안 찾기는 이뤄지고 있다.

'가을 잔치'라는 큰 무대까지 생각하면 더 늦기 전에 확고한 마운드 구축과 운영의 답을 찾아야 하는, KIA의 위기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김기태 감독 "9번은 '수위 타자' 호투 임기준 "한 타자만 생각해요"

덕아웃 T 특특

▲한 타자만 봐요 = 다음을 생각할 겨를도 없지는 임기준이다. 임기준은 지난 6월 25일 뒤늦게 1군에 합류한 뒤 더 좋아진 제구와 과감한 승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2경기여 나와 2.41의 평균자책점으로 1세이브 1홀드. 지난 18일에는 두산을 상대로 선발로 등판해 5이닝 4피안타(피홈런) 1볼넷 1탈삼진 2실점의 호투를 하며 선발 고민에 빠진 팀에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어렵게도 결과는 1-2패. "선발로 나올 때 임기준이 신중 쓰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임기준은 "그런 생각도 안 한다. 바로 앞에 있는 타자만 생각하고 공을 던지고 있다.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볼넷만 주지 말자는 생각이었어요 = 올 시즌 불펜의 마당쇠로 역할을 하는 대졸 신인 박진태다. 박진태는 지난 19일 SK와의 홈경기에서 배원찬에 이어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나와 4.2이닝을 소화했다. 0-9로 이미 흐름이 기울었던 3회 1사 1·3루에서 등판한 박진태는 88개의 공을 던지면서 7회까지 소화했다. 박진태의 프로 첫 등판 날도 비슷했다. 4월 11일 두산 원정에서 선발 홍건희가 일찍 무너지면서 4-8로 뒤진 4회 2사 1·3루에서 등판해 불붙은 두산 방망이를 상대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누군가는 막아야 하는 이닝을 묵묵하게 책임진 박진태는 19일 "관중석 분위기도 그렇고

던지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래도 볼넷만 주지 말자는 생각으로 최대한 이닝을 막으려고 했다"며 "첫 회 던지고 내려오니까 우타자와의 승부가 좋지 못한 점을 코치님이 말씀해 주셨다. 나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고, 몸쪽 승부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신경 쓰면서 우타자 승부를 하려고 했다"고 전날 경기에 대해 언급했다. 김기태 감독은 박진태의 피칭에 대해 "감독으로서 고맙고 미안하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년 시즌에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수위타자 = 19일 경기에 앞서 선발 라인업을 언급하던 김기태 감독. 김 감독은 "원래 순서대로 들어간다"며 1번부터 8번까지 선수들의 이름을 언급한 뒤 마지막 9번 자리에서 '수위타자'라는 단어를 썼다. 0.387로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선빈을 '수위 타자'로 표현한 것이다. 전날 7번으로 나왔던 김선빈이 익숙한 9번으로 돌아간 이날, 라인업에서 가장 눈길이 쏠리는 부분은 6번 지명타자 최원준이었다. 대선배나 지원을 대신해 지명타자 역할을 맡게 된 최원준은 경기 전 김 감독으로부터 타석에 있을 때 표정 관리에 대한 지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경기기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최원준의 지명타자로서의 첫 선발 출장은 없던 일이 됐다. 한편 KIA는 19일까지 3주 연속 비 때문에 일요일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코리안 메이저리거 소식

### 류현진 5이닝 무실점...LA 6연승

'괴물'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시즌 세 번째로 무실점 호투를 펼쳤음에도 시즌 5승 달성을 이루지 못했다. 류현진은 20일 미국프로야구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안타 3개를 맞고 볼넷 4개를 허용했으나 삼진 4개를 슈아내며 무실점으로 막았다.

그러나 팀 타선이 광속구 투수 마이클 폴터에게 쫓겨 0-0인 6회 로스 스트리플링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다저스는 류현진 강판 후 득점에 성공해 3-0으로 이기고 6연승을 달성했다.

류현진은 이날 89개의 공을 던져 54개를 스트라이크로 꽂았다. 속구의 최고 시속은 150km를 찍었다.

7월 31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 8월 7일 뉴욕 메츠전 등 두 경기 연속 7이닝 무실점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선발 무실점 역투를 펼쳤다. 하지만 시즌 두 번째로 많은 볼넷(최다)을 남발했고, 타선의 지원도 못 받아 승수를

추가하지 못했다.

류현진은 스위치 히터 1명 포함해 선발 타자 9명 전원을 오른손 타자로 구성한 디트로이트에 맞서 속구를 양념으로 던지고 컷 패스트볼과 체인지업, 커브로 타자들을 유인하는 볼 배합을 선보였다.

1회 톱타자 이언 킨슬러를 볼넷으로 내보냈으나 3. 4번 타자인 저스틴 업튼과 미겔 카브레라에게 커터를 던져 삼진, 중견수 뜬공으로 누웠다.

류현진은 3회 최대 위기를 맞았다. 첫 타자 저코비 존스에게 3루수 내야 안타를 내준 뒤, 후속 타자를 중견수 뜬공으로 잡아 한숨을 돌렸으나 킨슬러에게 다시 볼넷을 허용해 1·2루에 몰렸다.

마이크 마독의 중견수 뜬공으로 2사 2·3루 실점 위기에서 류현진은 업튼과 맞대결했다. 업튼에게 다시 볼넷을 내줘 2사 만루 고비에 처한 류현진은 카브레라를 공 3개로 돌려세우고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연합뉴스

# 한국 남자 농구 자신감 얻었다

亞컵 준결승서 이란에 81-87 패...정상급 나라와 대등  
이정현·허웅 등 30세 이하 젊은 선수 주축 미래 밝아  
득점·3점슛 성공률 2위...어시스트 1위 '조직력 탄탄'  
11월 농구 월드컵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 기대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이 14년 만에 아시아컵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아시아 정상급 나라들과 좋은 내용의 경기를 선보이며 국제 경쟁력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허재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은 20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2017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준결승 이란과 경기에서 81-87로 졌다. 하지만 한국은 직전 대회인 2015년 아시아선수권 6위의 부진을 씻어내고 '아시아 농구 강국'로서 자존심을 다스리려 회복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오세근(200cm), 김종규(206cm), 이승현(197cm), 이종현(203cm) 등 '빅4'가 골밑을 든든하게 지켰고 김선형(187cm), 박찬희(190cm)에 최준용(200cm)이 장신 외곽 요원으로서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조성민(kt)과 문태중(오리온), 문태영(삼성) 등 국내 리그를 대표하는 슈터들이 빠진 자리에는 이정현(191cm), 전준범(194cm), 허웅(186cm) 등이 제 몫을 했다. 30세 이하 젊은 선수들이 주축(평균 연령 26세)을 이룬 점도 고무적이다.

지난 시즌 KBL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MVP를 휩쓴 오세근이 중심이 된 골밑은 제공권 경쟁에서 대등하게 버텼다.

지난해 이란에서 열린 FIBA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이란과 두 차례 만나 두 번 모두 30점 이상 완패를 당하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27-46, 27-64 등으로 압도당한 것과는 비교하기도 어려운 수치다.

개최국 레바논과 조별리그 1차전에서 6점 차로 분패한 한국은 이후 FIBA 랭킹 20위로 한국보다 10계단이나 높은 뉴질랜드를 1점 차로 꺾었고, '숙적' 일본을 상대한 8강 진출 결정전 역시 13점 차 완승을 거뒀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평균 득점 89.7점으로 세계 랭킹 10위 호주(95.2점)에 이어 2위에 올랐고 3점슛 성공률 42.3%와 경기당 3점슛 성공 10.5개로 모두 2위를 기록했다. 어시스트는 27.2개로 16개 참가국 가운데 1위에 오르며 탄탄한 조직력을 과시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는 11월부터 시작되는 2019년 FIBA 농구 월드컵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됐다.

FIBA가 2019년 대회부터는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예선 제도를 바꾸면서 한국은 예선 A조에서 중국, 뉴질랜드, 홍콩과 함께 2018년 7월까지 홈과 원정을 한 번씩 오가며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허재 감독이 지휘하는 남자농구 대표팀이 20일(한국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2017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이란과 준결승에서 접전 끝에 81-87로 졌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1일 0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뉴질랜드와 3위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됐다. 사진은 김선형이 하다디의 수비를 피해 골 밑 돌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 추신수 쓰리런포 등 4안타 '맹활약'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홈런을 포함해 4안타를 치는 시즌 최고의 맹활약을 펼쳤다.

추신수는 20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 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6타수 4안타(1홈런) 3타점 3득점 1도루로 경기를 마쳤다.

4안타는 올 시즌 처음이다. 시즌 타율은 0.251에서 0.257로 올랐다. 홈런은 5번째 타석에서 나왔다.

그는 팀이 13-6으로 앞선 6회 말 2사 1·2루에서 화이트삭스의 3번째 투수 크리스 벡의 3구째 시속 142km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우측 담장을 넘기는 쓰리런포를 폭발했다. 지난달 22일 탬파베이 레이스와 방문 경기에서 나온 투런포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타진 시즌 15호 홈런이다.

추신수는 이날 앞선 타석에서 3안타를 쳤다. 사실 이 3개의 안타는 모두 다소 운이 따랐다.

그는 0-5로 뒤진 1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중전 안타로 출루했다. 빗맞은 타구가 중견수 앞에 딱 떨어졌다. 이후 3루까지 진루한 뒤 노마 마자라의 땅볼 때 득점까지 올렸다.

추신수는 1-5로 추격당한 3회 말 무사 2루에서 내야 안타로 일찌감치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완성했다. 타구는 힘없이 2루수 쪽을 향했고, 2루수의 악송구로 2루까지 진루했다. 텍사스는 3회 말 대거 6점을 올려 역전했다.

추신수는 7-5로 앞선 채 맞은 4회 말 무사 1루에서는 2루수의 허슬한 수비로 1루를 밟았다. 기록은 추신수의 내야 안타다. 그는 이어 시즌 11호 도루로 2루를 홈런 데 이어 아드리안 벨트레의 적시타로 홈까지 밟았다.

추신수는 6회 말 5번째 타석에서 3점포를 터뜨렸다. 텍사스는 17-7로 크게 이겼다. 올 시즌 텍사스의 최다 득점이 다.

/연합뉴스